

행복·지식·문화·환경도시를 추구하는 새희망 새진주

남부지방의 중심도시 진주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지켜온 유서깊은 고장으로, 21세기를 앞서가는 지식도시, 문화도시, 환경도시인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기치로 힘찬 도약의 발걸음을 내딛는 도시이다.

진주 지역의 산업경제

진주는 1910년경부터 기계를 이용하여 비단을 생산하였고, 1988년에는 국내 유일의 한국견직연구원이 설립될 만큼 비단 생산에 대표적인 도시이다. 우리나라 총비단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진주는, 최근 수출용 브랜드 실키안과 국내 내수용 진주기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실크시장의 최고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서부경남 상권의 중심도시이고, 교육·문화도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한 진주는 1·2차 산업에 비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 여건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 관광·물류·유통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생명공학, 우주항공 등 지식기반 위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있으며, 실크와 농산물 가공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진주에는 2002년말 기준 25,528개 업체에 94,421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전체 인구 340,816명의 27.7%로 타지역에 비해 경제활동 인구수와 비율이 적은 편이다.

업종으로는 서비스업이 48.2%로 가장 많고,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이 9.4%, 2.5%, 2.9%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에서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99.3%에 종사자는 72,053명으로 76.3%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어느 지역보다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들어 우주항공산업과 외국기업 유치에 위한 단지 조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점차 산업구조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도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정부의 안전관리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산업재해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역의 산업사회의 숨은 일꾼 안전인

〈〈한전기공주식회사 삼천포사업소 이몽섭 소장〉〉

전기는 우리 몸의 피와 같은 존재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

지역 안전기행

를 우리에게까지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데에는 발전설비를 보수·정비하는 한전기공이 있어 가능하다.

오늘 찾은 곳은 현재 무재해 3배를 지나 5배 달성을 향하고, 한전기공에서 최초로 안전경영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 삼천포시업을 찾아 한차원 높은 “최고의 전문정비기술회사” 로써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이곳에서 이몽섭 소장을 만났다.

안전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몽섭 소장은 사업소 안전경영 지침의 맨 앞에 기본에 충실할 것을 설정해 놓는다. 운동의 기본인 자세가 중요하듯 안전에서도 기본은 무재해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처럼 기본을 중요시 여기는 그는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소박한 외모에 털털함이 이웃집 아저씨이면서, 한 가정의 큰형같은 넉넉함이 풍긴다.

이러한 성품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몽섭 소장은 현장순찰시 직원들에게 “안전을 지켜라”라는 주문을 하지 않는다. 명령과 같은 이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 자칫 반발감에 따른 불안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몽섭 소장은 현장 직원에게 어떤 지적사항을 전달할 때에는 스킨쉽과 함께 전달한다. 이렇게 하였을 때 지적하는 이에 대한 방어적인 감정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안전관리의 올바른 방향은 자율안전이고, 근로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감성안전임을 볼 때 이몽섭 소장은 앞서가고 있음에 틀림 없다.

어릴 적에 주변 인물들이 시인이나 교수가 될 것 같다고 예견할 정도로 감성적인 그는 공학도로 주변 예견과는 달리 이 자리에 있지만 본성만은 바꿀 수 없나 보다.

그래서인지 이몽섭 소장은 직원들에게 도시, 문학소설 아니면 유머를 많이 읽으라고 주문한다. 이곳 직원들도 자신과 같은 공학도로 정서와는 좀 거리가 있다고 느꼈던 터라 마음을 다스릴 책은 자신의 안전한 직장생활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유머는 직장생활에 활력소가 될 수 있고, 동료에게 웃음을 줄 수 있어 신나는 직장 문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직접적이고 수직하달식의 안전관리보다 스스로 알고 이행할 수 있는 분위기 구성에 그 중요성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몽섭 소장은 요즘 기업이 무재해 목표달성에만 치중하여, 자칫 목표달성을 위해 무늬만 무재해를 달성하여 진정한 안전과 무재해가 멀어져 갈 수 있음을 지적, 진정한 안전을 생각할 때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끝으로 지역 각 기업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인들에게, 안전활동에 있어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안전활동이라며,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참여유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 이 몽 섭 소장





것을 당부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김문섭 안전과장》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주목받는 미래산업에 항공우주산업이 있고, 그 중심에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종합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가 있다. 지역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지역의 안전 수준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이곳에서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김문섭 안전과장을 만났다.

기계공학도인 김문섭 안전과장은 93년 회사 설립시 건설담당을 시작으로 그 해 항공분야의 안전인으로 자리잡은 10년 베테랑 안전인이다.

오늘도 사업장 무재해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작은 불안전요소 하나하나를 사전에 찾는 예방안전을 펼치기 위해 현장으로 향하는 그는, 안전을 시작하던 그당시는 생산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회적 풍토로 안전은 뒷전이었으며, 현장에서는 근로자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고 회상하며 안전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고, 또 가장 안타까웠던 때라고 얘기한다.

근로자들과의 마찰은 마찰로만 끝나지, 상황은 호전되지 않는다고 여겼던 김문섭 안전과장은 그때부터 안전이 왜 필요한지 그들에게 이해시키는 안전을 펼쳤고 그 결과, 지금은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챙긴다고 한다.

이처럼 자율안전이 자리잡은 이곳에서는 안전인으로서 업무의 부담이 상당량 줄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근로자가 변하기에 이에 맞는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사회적 흐름에, 안전인은 현실에 안주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말도 잊지 않는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근로자의 안녕을 위해 일하는 안전인이라면 주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시야와 자기개발에 게을리 하지 않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소방분야에 대해 지식을 넓히고 자소방기사 1급에 도전하고 있는 그 역시 자기개발을 위해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다. 향후 근로자의 건강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건분야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것이라는 계획도 이야기한다. 또한 앞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는 첨단 항공기를 조립, 생산하는 공장으로 안전보건 관련 법규 준수는 물론, 지속적인 작업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안전보건 활동을 집중시킬 것이며, 이로써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사회의 안전문화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도 함께 한다.



끝으로 김문섭 안전과장은 몇해전부터 규제완화로 안전교육도, 안전관리자 선임도 자율이라는 기준아래 규제가 완화된 것에 대해 자율은 어느 정도 기반이 확보되어 있는 대

▲ 김 문 섭 안전과장

기업의 경우에 해당되는 제도로 이들에게 있어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관리의 사각지역에 있어 안전에 대해 취약하므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한다. 즉, 강제성을 띤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안전분야도 상호 정보를 공유해 안전한 진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도 잊지 않는다.

재난관리시스템

진주에서는 금년도 119지원 사업으로 조기진화능력 향상을 위해 화재유형별 진압기술훈련을 강화하고, 소방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보강을 실시하였다.

또한 문산파출소, 상주출장소를 신축 이전하고, 화재조사실을 설치함으로써 소방장비와 소방력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재해·재난으로부터의 관리로는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관리 내실화를 꾀하고 위험물 시설의 완벽한 설치 및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소방검사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하는 예방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밖에 어린 새싹들에게 안전 의식을 심어주고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화재예방체험교실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종덕 기자〉

